

목양의 역사(2)

스페인에서는 순 백색의 크림프가 많고, 가느다란 고급 메리노 양모를 생산하게 되어 대단한 세력을 구축하게 되었다. 스페인 메리노라 하여도 그 종류는 다양하였다. 그 중에서도 후에 호주 메리노의 모태가 되는 에스큐리얼(Escorial), 네그레티(Negretti), 파울라(Paular), 인판타도(Infantado)의 네 종류가 있으며, 구아다루페(Guadalupe)종까지 포함하면 다섯 가지가 되는데, 이들은 모두 트랜스휴먼테스 종이다.

이 중에서 에스큐리얼은 스페인 국왕이 직접 관리하던 메리노종으로 몸집은 다소 작지만, 좋은 양모를 갖고 있는 타입으로 스페인 메리노 중에서 가장 가늘고, 고급 양모를 생산하는 양종이다. 네그레티는 네그레티 백작이 관리하던 메리노종으로 몸집이 가장 크고, 강건한 메리노종이었으나, 양모의 길이가 다소 짧다. 파울라는 부르노파의 수도승이 파울라에서 관리하던 메리노종으로, 스페인 메리노종의 3대 혈통중의 하나로 몸집이 우수하고, 생사와 같은 부드러운 양모를 갖고 있었고, 인판타도 메리노종은 인판타도 공작이 기르던 메리노로 네그레티와 파울라의 중간 타입이며, 수컷의 뿔이 머리에 빠짝 붙어있는 양종이다. 그리고 마지막인 구아다루페는 네그레티보다는 골격이 크고, 치밀한 양모를 갖고 있는 타입이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이들 스페인 메리노 양의 털의 길이는 평균 5 cm 정도이며, 한 마리의 메리노 양에서 1년에 수확할 수 있는 양모의 양은 2 kg ~ 2.5 kg 정도이다.

스페인 국왕은 외국으로 양을 단 한 마리라도 밀반출하는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는 무서운 처벌 규정을 선포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것은 언제나 국왕 자신이었다. 이것은 유럽의 여러 왕국 사이에 선물이 오가게 되어 시작된 것인데, 가령 1723년에 스페인 국왕은 스웨덴 국왕에게 메리노 양 10여 마리를 선물하고, 1765년에는 독일의 색스니(Saxony) 국왕에게 300마리의 스페인 메리노를 선물하게 되는데, 이것이 후에 색스니 메리노 개발의 모태가

된다.

독일로 들어간 스페인 메리노가 색스니 메리노로 개척되면서 1770년에는 프랑스에도 스페인 메리노가 수입되고, 1773년에는 루이 16세 국왕이 랑부예 공원에서 스페인 메리노를 사육하면서 랑부예(Rambouillet) 메리노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영국에서는 조지 3세가 1798년 네그레티 메리노를 수입하여 윈저(Windsor) 공원에서 사육을 시작한다.

헝가리 제국의 마리아 테레사 여왕은 스페인에서 수입한 메리노를 확보하고, 이제까지 양젖 채취가 목적이었던 그 나라 목양 체계를 완전히 바꿔버렸다.

한편, 네덜란드 오렌지 왕가에 보내진 스페인 메리노는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지방으로 멀리 보내지는데, 이것이 메리노 양모의 개발사에 결정적인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

스페인 왕가에서 암양 네 마리, 숫양 두 마리를 선물로 받은 오렌지 왕가에서는 습기가 많은 네덜란드에서는 사육이 어려우리라고 판단하고, 1789년 당시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케이프타운의 고든(R. J. Gordon) 사령관에게 사육할 것을 명령한다. 고든 장군은 이들 여섯 마리를 잘 길렀는데, 2년 후에 왕으로부터 메리노 양을 다시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받고, 처음에 받았던 여섯 마리만을 반납하고, 그 사이에 태어난 양들을 남아프리카에 남겨둔다.

♣ (공석봉)